# 불교 검색사이트 '선재' 떴다

## 문화·포교등 89개사이트 정리
## 불교학당 개설…메일링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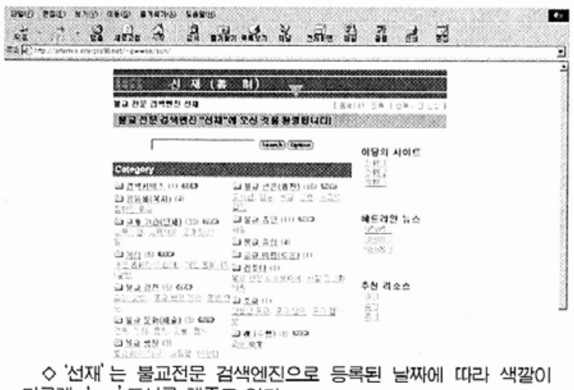
인터넷 초보 정귀선씨. 불교관련 홈페이지들은 몇 개나 있을까 궁금했다. 또 다니는 절에서 신도관리 등을 전산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도 찾고 싶었다. 정씨는 인터넷에 접속해 사찰 전산화 프로그램을 찾아보려고 검색사이트를 찾았다. 검색어를 사찰로 놓고 검색을 했더니 일일이 방문하기에는 너무 많은 페이지들이 떴다. 어떤 페이지들이 검색됐는지 검색결과를 다보기에도 벅찼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네티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좀더 편리하게 불교관련 사이트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개설된 불교전문 검색사이트 선재(http://artemis.interpia98.net/~gwwso/sun)는 불자네티즌들에게 친절하게 불교홈페이지들을 소개한다.

검색엔진은 심마니 야후 코리아 등 한글통합검색이나 뜰마니 가마니와 같은 패러디 검색, 기업, 공공기관, 의학, 교육, 게임, 레포츠, 여행, 부동산 등 전문검색엔진 등이 만들어져 있다. 이 가운데 불교전문 검색엔진 선재가 최근 개설돼 불자네티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불교정보전문사이트 불교학당(http://kitel.co.kr/~mirrk) 운영진이 개설한 선재는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건문 검색엔진이다. 현재 14개의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코너에서는 장애인 포교 및 복지관련 홈페이지들을 링크해 놨다. 불교문화 코너에서는 건축과 문학 미술 음악 등 전문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고, 종교비판이라는 토론 페이지도 등록되어 있다. 전문인 포교, 단체 포교 및 포교정보를 제공하는 홈도 포교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 언론출판 코너에는 불교서적을 검색할 수 있는 서점이나 언론, 도서관의 홈도 수록되어 있어 다양한 불교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쇼핑몰, 교육기관, 동호회 홈페이지 등 네티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홈들은 불교생활코너에 가면 있다. 이외에도 교계기관 단체, 스님 및 개인 홈페이지, 불교경전, 교리, 불교관련 소프트웨어, 사찰전산화 지원 사이트 등도 쉽게 가 볼 수 있다.

선재에서는 등록 회원들을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순위 링크인 '불교 홈페이지 Top 10'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네티즌들의 추천을 일정정도 받은 사이트가 없어 Top 10에 수록된 페이지는 없는 상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등록한 사이트들이 89개로 얼마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등록자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선재'는 불교전문 검색엔진으로 등록된 날짜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new' 표시를 해주고 있다.

불교전문검색엔진 선재 외에도 야후, 알타포탈, 심마니, 까치네, 크라이슬러 등 국내외 검색엔진을 연결해 불교관련 검색결과만을 모아서 보여주는 불교검색(http://user.chollian.net/~gayasan) 홈페이지도 있다. 선재처럼 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각 검색사이트에 수록된 불교 홈페이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등록수도 월등히 많다는 장점이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신 현 덕
((주)원경제약 중앙연구소 연구기획부장)

## "이웃위해 기도하는 불자 되자"

내가 일하는 원경제약은 IMF 이후 얻은 제2의 직장이다. IMF로 어려운 시기에 제일 먼저 실직을 당했다. 하지만 나는 실의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토요일 오후에는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를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화성 신흥사에서 일요법회를 진행하는 간사로서 또 매일 새벽과 밤 2차례씩 기도 정진 수행했다. 이 일자리는 내 기도 정진의 결과로 얻어진 직장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만큼 귀중하다.

나는 새벽3시가 되면 눈을 뜬다. 자명종을 맞춰 놓지 않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몸에 뱄다. 아직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빠른 고요한 시간이지만, 명상 참선 경전읽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5시임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원광대 원불교 교당에서 들려온다. 새벽예불과 기도를 6시까지 하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싱크대 의자에 앉아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읽곤 한다.

우리집은 수원이다. 익산에서 함께 숙식을 하는 공장장은 교회 장로이다. 그분도 나처럼 집을 떠나 있어 월요일 새벽에 익산으로 출근하기 위해 신갈 톨게이트에서 만나면 금요일 퇴근시간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 내 이웃을 모두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기도는 큰 원력을 세우고 참회하여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 모든 원은 꼭 이루어진다. 참회를 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웃과 사회가 잘 되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항상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잠에서 처음 깰 때는 '중생들이 온갖 지혜를 깨닫고 시방세계를 두루 살펴지이다'. 칫솔질과 세수를 할 때는 '중생들이 다 묘법을 얻어 끝까지 청정하여지소서'. 이발과 수염을 깎을 때는 '중생들이 번뇌를 아주 버리고 마침내 적멸하여지이다'. 선정할 때는 '중생들이 선정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하여 구경까지 남음이 없어지소서'. 경전을 읽을 때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 기억하고 잊지 말아지이다'. 시계 반지 등 패물을 몸에 걸칠 때는 '중생이 거짓 꾸밈을 버리고 진실한 곳에 이르러지이다'. 즐거운 놀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중생들이 법으로써 즐기고 놀이는 참이 아님을 알아지이다'. 차를 타거나 길을 갈 때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행하시던 대로 나아가 의지 없는 곳에 들어가지이다'. 보시할 때는 '중생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에 애착이 없어지소서'. 병든 사람을 볼 때에는 '중생들의 육신이 공적함을 알고 어기거나 다투는 법을 떠나지이다'. 누워서 잠잘 때나 휴식을 취할 때는 '중생의 신체가 안락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지소서'. 라고 원한다.

불자들이 이와같이 마음을 쓰면 온갖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깨달음의 길은 멀기만 하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그 길의 처음은 물론 끝도 짐작할 수가 없다. 얻기 보다는 비우고 버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모두가 좀더 성숙된 불자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를 생활화하기를 발원한다. 지성불자에 걸맞는 지혜와 실천행을 두루 갖춰 천만 재가불자의 선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에 기여하면 좋겠다.

오늘 하루 이웃과 회사와 사회를 위하여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자. 무한한 공덕으로 나의 보금자리를 채워 주시고 평안과 행복, 가피를 내리시어 이 땅을 불국정토로 가꾸어가게 하소서. 나는 이 몸이 다 할 때까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불법을 홍법하는 포교사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발원한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나모 웹 에디터 설치하면 '홈' 제작 알아서 척척

### 홈페이지 만들기 ②

홈페이지는 HTML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다. HTML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드는 언어이다. 하이퍼텍스트란 한 문서 안의 특정 단어나 문장에 또 다른 문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브라우저 가운데 넷스케이프를 예로 보자. 메뉴바에서 View를 누르고 문서창에서 Page Source를 누르면 현재 보이는 페이지의 HTML 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어떻게 다 배우고 그 언어를 나열해 홈페이지를 꾸밀까. 초보자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위지윅(WYSIWYG)이다. 위지윅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문서로 작성하는 웹에디터로 나모인터랙티브의 나모 웹에디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론트페이지98,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의 넷스케이프 컴포저, 넷오브젝트의 퓨전, 어도브의 페이지밀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나모 웹에디터 3.0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할 것이다. 나모 웹에디터 3.0을 구입하거나 나모인터랙티브 홈(www.namo.co.kr)으로 들어가 기능평가판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모 웹에디터를 컴퓨터에 설치하자. CD-ROM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설치마법사가 화면에 뜬다.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면 윈도우화면 밑의 메뉴바에서 시작버튼을 누르고 실행을 클릭한다. 창이 뜨면 찾아보기를 눌러 D드라이브의 Setup.exe를 찾아 확인을 누르면 설치마법사가 실행된다. 그 다음엔 마법사가 가리키는 대로 설치하면 된다. 웹에디터 설치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클립아트를 설치하기 위해 Clip.exe를 찾아 실행한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C드라이브에 '내홈만들기' 폴더를 하나 만들자. 앞으로 만드는 홈페이지 요소들은 이곳에 저장하면 된다.

# 큰스님 초청간담회·세미나 열기로

## 불교언론인회 올사업…회보·홈페이지도 추진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1월28일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0년 사업을 확정했다.

한국불교언론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새해 사업 중의 하나는 숭산스님 현각스님등 교계 주요인사를 초청해 평소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는 간담회이다. 5월에는 창립 2주년 법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원을 대상으로 불교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불교언론인회 회보 및 홈페이지 제작도 준비중이다. 불교언론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며 백양사나 백담사에서 하계수련회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 대구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불교언론인회 지회를 충청권으로도 확대하고 북한동포돕기 운동과 회원들의 방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신광식 회장은 지난해 12월 북한을 방문해 조선불교도연맹 청사를 예방하고 남북불교교류 문제 협의 등 북한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신 회장은 "법회 운영이 우리와 똑같았다"고 밝혔다.

### 클릭! 새 홈페이지

■seventeen lumbini(http://cafe.daum.net/17thlumbini)-1월30일 개설. 익산 관음사 룸비니 17기들의 공간.

■힘내라!! 불교(http://cafe.daum.net/yayayaya)-1월30일 개설. 부처님을 사랑하고 불법을 숭상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http://cafe.daum.net/kido)-1월28일 개설. 매일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올리는 홈.

■용두산 송광암(http://yescall.net/song)-용두산 송광암 사진과 수련회 안내, 수련회 모집 요강 등 소개.

알림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 조계종 원우회 새해사업
## 경전법회·소모임 활성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회장 유지호 포교원 포교과장)는 경전법회, 소모임 활성화, 불교계 제단체와의 연대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실시키로 했다.

원우회는 1월31일 200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원우회는 우선 2월말부터 조계종 금강경 법회(강의 무비스님), 아함경 및 부처님의 생애(도법스님), 기본교리(정락스님)를 년중 진행할 예정이다. 경전강독모임을 비롯 서예모임, 다도모임, 불교근현대사연구모임 등 각종 소모임에 재정을 지원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5월 연합체육대회 개최를 한국불교기자협회 등의 단체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95년 80여명의 재가종무원들로 결성된 회원들의 신행강화를 위해 원우회는 108일 108배 신행결사(지도법사 지현 조계사 총무)를 결의하고 1월14일부터 매일 출근 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 2000년 무불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 생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 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불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1일 ~ 2월 26일

**모집내용**
- 주간반 00명 ·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 TAPE수강)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자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불교 신 · 불신 불문)

**합격자 발표**
- 2000년 2월 28일 ~ 29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6일(총 15주)
- 매주 월 · 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 · 야간반: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입학식**
- 2000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법당

**개설강좌**

| 학년 | 학기 | 과목명 |
|---|---|---|
| 1 | 1 | 선학의 이해/ 참선실수/ 중국선사상사 |
| | 2 | 인도선정사상사/ 선전개설/ 육조단경 |
| 2 | 1 | 한국선사상사/ 선어록 강독/ 선과 서양철학 |
| | 2 | 경허.만공선사상/ 선과 현대사회 선과 노장사상 |
| 교수진 | | 법산(동국대), 현각(동국대), 종호(동국대), 무비(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각성(전해인사 강주), 심재룡(서울대),윤원철(서울대), 김호성(동국대) 한종광(동국대), 박영재(서강대), 신규탁(연세대) 계속 초빙중 |
| ※졸업 후 전문 참구과정: 조주록, 임제록, 무문관, 벽암록 등 선어록 참구 | |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원 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전화: 02)541-0002~3 / 팩스: 02)541-0004
E-mail: moobool@netsgo.com
moobool@channeli.net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ー**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